

“억대 과태료 내더라도 공장 못 멈춰”

광주 제조업체들, 산업용 전력사용 10% 감축 조치에 반발

“가동 멈추면 수출 차질 ... 대비할 시간 달라”

“억대 과태료를 내더라도 공장 가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공장 설비를 증설해 계약 전력을 10% 추가해야 할 형편인데 작년보다 10% 감축하러나 말이나 됩니까.”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광주 지역 제조업체들은 ‘탁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최근 광주지역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긴급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역 업체들은 난방 중지와 조명 끄기 등 전력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10% 감축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오히려 내년 시행 예정인 피크요금제 300kW 이상 확대 방

침을 유보해 기업들의 에너지절감 설비 도입 등 전기요금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계에 대한 제재보다는 전력 발전소의 고장 방지,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발전소 확대 설치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에 따르면 정부는 ‘9·15 대규모 정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6.5% 인상하고 15일부터 1000kW 이상 사용업체의 피크시간대 전력사용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10% 감축 의무)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1일 최고 300만원으로 계산해 제한조치 시행일수 77일(15일~내년 2월 29일)동안 최대 2억25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기존 1000kW 이상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피크요금제를 300kW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1만3000여 곳 이던 피크요금제 대상이 11만1000여 곳으로 늘어 소규모 업체들에게도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권 1000kW 이상 사용업체 800여 곳은 “피크시간대 전력사용 10% 감축 조치는 공장가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생산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정부시책에 따라 전력사용 10% 감축을 위해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피크시간대 난방 중지, 조명 끄기, 컴퓨터 절전상태 전환 등을 실시했지만 10% 감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A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10% 절감은 불가능하다”며 “가동을 멈추면 수출 등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

에 억대의 과태료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과태료 금액보다는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훨씬 더 크고, 국제 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일부 업체들은 정부가 지난 5일 공고해 1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감축이행 대상 제조업체들은 시행 6일 전에 연락을 받았는가 하면, 감축이행불가 사유서 제출 기한이 9일까지인데 관련 공문은 12일에 접수되는 등 정책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지난 8월 산업용 전기요금 6.1% 오른데 이어 12월에도 6.5% 인상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제재보다는 전력 발전소의 고장 방지 및 발전소 확대 등의 대책과 산업계의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스노우 글로버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8일 신세계센터시티 1층 센텀광장에서 ‘윈터 스노우 글로버스’ 공연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까지 계속되는 이 공연은 지름 3m 높이 4.2m의 대형 스노우 글로브(snow globe) 안에서 넘겨가 환상적인 아크로바틱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광주 제조업체 “내년이 더 어렵다”

BSI 81 ...올보다 15P 급락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은 내년 1분기 경기가 더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1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가 81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4분기(96)보다 15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2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도는 수치여서 부정적 전망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분기보다 경기가 악화된다고 예상한 업체가 38.4%(전분기 25.0%)로, 호전을 예상한 업체 19.8%(전분기 21.3%)보다 많았고,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는 41.8%(전분기 53.7%)였다.

이같은 전망은 유럽·미국·중국 등 주요국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에 따른 수출 감소와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내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 기업들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매출(94)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원자재 구입가격(63)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판매가격(87)의 인상이 쉽지 않아 영업이익(80)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자금사정(90)도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분기 예상되는 가장 큰 경영 애로는 수요 위축(39.5%)을 꼽았고, 이어 자금사정(20.2%), 환율불안(16.3%), 원자재난(15.5%), 노사관계 및 인력난(7.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산재보험 급여

하루에 16만5809 원

내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하루 최대 16만5809원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에 적용할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을 18일 공고했다.

산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감안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최고·최저액, 진폐고시임금 등을 매년 고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내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3.76%, 소비자물가는 3.48%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보험급여를 산정했다.

/연합뉴스

광주 R&D 분야 종사자 급감

총 1만 1204명 ... 1년 전보다 5.2% 줄어

광주지역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와 전남지역 운수업 종사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기준 호남지역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조사 결과, 광주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체수는 1936개로 전년(1900개)에 비해 1.9% 증가했다. 하지만 종사자수는 1만 1204명으로 전년(1만1824명)에 비해 5.2%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운수업 종사자수가 2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감소했다. 기업체수는 9000개로 전년 대비 0.1% 소폭 증가했다.

광주 전문·과학·기술과 전남 운수업 분야 종사자수 감소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이 분야를 제외하고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47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6	25	26	31	36	43	4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809,656,090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91,794,150	23
3	5개 숫자 일치					1,561,587	1,352
4	4개 숫자 일치					50,000	68,212
5	3개 숫자 일치					5,000	1,132,776

서암기계공업(주) 코스닥 상장

광주 하남산업단지

발행 주식 총 315만

광주 하남산업단지 내에 있는 서암기계공업(주)이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승인을 받아 19일부터 거래된다.

발행 주식은 총 315만주(일반 청약 252만주, 우리사주조합 63

만주), 119억7000만원이며, 발행 가격은 3800원이다.

화천기계 등 화천그룹의 계열사인 서암기계공업은 공작기계의 주요 부품인 기어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1978년 설립됐다. 지난해 매출 321억원, 영업이익 34억원, 당기순이익의 33억원을 기록했다.



광주은행,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사회책임경영부문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1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소비자학회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후원한 ‘2011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은 소비자들을 위한 모범적인 경영모델을 갖추고 권익 우선주의 경영을 실천하는 우수 기업을 찾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광주은행은 은행 내 사회공헌전담 부서 신설과 체계적 CSR 활동 정립,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번 ‘2011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에서 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금융위가 직접 고친다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투명화·합리화 작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카드수수료 문제는 당사자인 카드사와 가맹점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논란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위의 입장 선회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인하 요구로 촉발된 이 문제가 유통업소, 한의원, 대기업, 출판업

계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내 발표할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의지를 밝힐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카드업계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작업 결과를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실금융회사와 거래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 지급(예금대지급) 후 남은 예금에 대해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일정비율에 따라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 홈페이지 (http://www.kdic.or.kr, http://m.kdic.or.kr) 의 미수령배당금 조회 참조
- ▶ 안내전화 02-758-1004, 02-758-0434



[파산배당금]이란 파산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은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 후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